전달 대비 3.9%↑…17개월 만에 가장 높아시차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 반영 불가피  
  
  
  
  
  
  
  
클립아트코리아지난달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.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다.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‘4월 수출입물가’(잠정)를 보면,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43.68(원화 기준·2020년=100)로 3월보다 3.9% 올라 2022년 11월(147.92)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.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2.9% 올랐다.수입물가는 올해 1~3월 오름폭이 다소 둔화 추세(2.5%→1.0%→0.5%)를 보였는데, 지난달 다시 크게 높아진 것이다. 지난해 8월(4.2%)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. 한은은 “지난달 원-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”고 설명했다.한은에 따르면, 국내 주력 수입품인 중동산 두바이유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배럴당 89.17달러로 전달보다 5.9% 올랐다. 3월 상승률(4.1%)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. 지난달 원-달러 평균 환율(1367.83원)도 지난달 장중 한 때 1400원을 찍는 등 전달 대비 2.8% 올라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. 이 영향으로 광산품 등 원재료가 5.5%, 1차금속제품 등 중간재는 3.7%, 자본재 및 소비재는 1.9% 각각 올랐다. 세부 품목별로는 원유(8.9%)·동광석(12.4%)·커피(14.6%) 등이 많이 올랐다.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4.1% 올랐다. 반도체가 전월 대비 10.9% 오른 것을 비롯해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, 화학제품 등이 많이 올랐다. 반도체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 기준으로 54.7%, 물량 기준으로 8.5% 증가했다.